京城의 富力=겨우 四億餘圓

작년말경성부묘사에의한 가련한조선수부의총재산

오만구천륙백팔십륙호에 이십칠만일천사백십사인의 큰살림을버린 경성부(京城府)는 날마다느러가고 해마다 충실하야간다 부외로밀려가는 조선사람의수보다 시내로몰려드는 일본사람의수가 반드시 더한것은경성부의살림이 느러간다는것을 말하는동시에 경성의 녯주인이든조선사람의 몰락을 함께말하는것이다 좌우간 경성은커간다안으로나 밧그로나 차차커간다

초가집은

차커볼디경이며 이층양옥집들은 큰소리를못하게되야 제는제법 도시(都市)의행세를 하는것이니 과연커가는경성의부력(富力)은얼마나되는가 각는행금고에 갓커잇는돈 각공장에서주야업시 돌고잇는가진괴계 각상뎜에 벌려잇는상품, 새로짓는 총독부이며문허커가는 오막사리 집이며기생들의 손에쥐어잇는 반지와월부로사입고 다니는 양복세민의외투, 그가튼모든경성부내에잇는가진물질을 전부돈으로 타산을할때에는실로

사억사천

사백오십오만륙천구십륙원(작년말묘사)으로일본전토의 부력일천 십구억칠천칠백사십팔만원에 비하면약이십팔분의일가량이며 일본각도시와 비교하면 오시(吳市)의사억오천사백칠십륙만원의다음이요웅본시(熊本市)의사억이천팔백만원의우이라한다

京城大學志願者 今年에도 身分調査

일본문부당국의태도에따라 금년에도엄중히묘사한다고

경성뎨국대학 예과(京城帝大豫科)의입학지원자신분묘사(身分調査)문뎨에대하야는작년에도 여러가지로 문뎨가만핫거니와 금년에도 작년과일반으로묘사를할터이라는데이에대하야 평정학무과장(平井學務課長)은 다음과가티말하더라

경성뎨국대학 예과 입학생신분묘사에대하야는 작년에도 민간의물의가 만핫든 모양이나금년에도 여하간묘사는 아니할수업슬줄로 생각하며 묘사할범위는적어도 대학생으로서의 톄면을유지할만한 성격인지 아닌지또는사상방면에 잇서서도 현재제도아래에 잇는국톄(國體)를 근본으로 파괴하랴하는등의 사상을가진자는 도뎌히 허락할수업슬줄로 생각한다 그러나이것은

조선에만

유독그리한것이아니라일본에서도거번고등학교장(高等學校長)회의에서 여러가지문뎨가 만핫스며 또는각대학안에잇는 사상단톄에 대하야는 해산을 명령하는등근래에이르러 이러한 사상방면에대하야문부(文部)당국은특별한주의를하는터인즉 조선이기로그방침을취하지 안을수 업스며구톄뎍으로 묘사하는방법은 금년도 경찰서에의뢰할는지 기타다른 온순한방법을취할는지 아직결뎡하지안엇는데자세한것은

소뎐과장

(小田科長)의의견으로 결뎡을할것이다 또는 신분묘사는 조선학생에만하는것이 아니라 일본인학생도일반으로 행하는것인데 작년에도시뎐(柴田)중학교장과 고교(高橋)시학관의 자질에게까지묘사를한까닭에 그네들로부터 소뎐과장에게 항의를한일도 잇섯

四面楚歌中의 時局大同團

二時間을繼續하야 怒號、唾罵、冷笑

대구달성공원의일장활극

일선융화(日鮮融和)를표방하고일어난 소위시국대동단(時局大同團)이 경성에서발생한후그주지를 디방에선전할 목뎍으로국민협회에 간부로잇는 고희준(高羲駿)을비롯하야이천고양군수(高陽郡守)오태환(吳台煥)과채긔두(蔡基斗)림경호(林敬鎬) 등일파가십일일대구에와서아츰부터자동차로권시가에

선전서를

산포하고오후두시경에달성공원(達城公園)에서강연회를 개최하얏는바 의외로이러한 소문을드른 대구의각사회는 모다놀라는 눈동자로그들의행동을 주목하게되야 일반의공긔가 매우긴장한중 더욱히수양단(修養團)과 용진단(勇進團) 의사상단톄들은 무슨직접행동을 하고저 여러투사(鬪士)들이주먹으로베르고그외시민중에도 가장격앙분개 하는여론의소리가 점차로 놉하가며형세는

매우험악

하엿는데정오경에각단톄에서각각긴급회의를열고 그대책을협의한결과 이것은언제던지 출몰하는무력한 단톄임으로 새삼스럽게중대시(重大視)할필요가 업다하야대구사회측에서 단톄로는 그것을정면으로상대를 삼아반항할 필요가업스며 그이외는모다 개인행동에일임하기로 대개의 의견이일치되야모다도외(度外)로보는모양이엇는데 당일 달성공원에는오백여명의

보텬교도

가모혓스며그외에장내로 모혀든군중의 대부분은모다집회를방해하려오는사람인바 보텬교대구진정원장(晉天敎大邱眞正院長) 민영성(閔泳晟)이가 먼저개회를선언하자격분한 마음에흥분된 군중은당장에 큰소리를지르고 일제히그연설을 방해하야사방에서「이놈아 죽이라 쓰러나리라」하는공격이비발가티드러오며 연설하는가온데 전후두시간 동안이나계속하야 큰소동을일으키고 고희준채긔두오태환등의세명이 모다정신을차리지못하는태도로멋마듸를말하고 가만히 자최를어대로숨기고마랏는데

渭原江岸에 接戰

독립당세명은총에마저죽어

십일오전령시경에평안북도위원경찰서(平北渭原署)에서는서장이하 수십명이 국경연안에서독립단 홍석호(洪碩浩)등 일대와약한시간동안 교전하야 독립단삼명이 피살되얏스며 식륙혈포한자루를 빼앗고 경찰측에서는 순사한명이 부상하엿다더라

獄中에서 번돈

이원을모처

齋藤總督이 閔庭植과會見

속히귀국을권고

오래환이 가

旅館外지 警戒

대구인사분개

고희준등

이번의회

大邱驛頭에 示威

용진단원에게더맛저가두

國粹、水平大亂鬪

일본산수에서부상자수십명

衡平員을 相對로

조선으로 도라가라는

烟草를強制로販賣

청주미원전매국파출소에서 회연장수연을구제로판다고

구타사지

전매국에

閔元植後身이라고

연단에서쓸려나린박병철 군산경연회는대동단강연

어리석어

자칭면자

레닌逝去一週年

경성청년회의기념강연

로사六週演說

무학재가문허저!

바위덩이가굴러나리어 통행하기가위험하다고

仁川警戒繼續

단서붕잡혓다

仁川氷上經過 『오플오』優勝

醜婦殺兒

龍塘里에 轢死

契알이업다고

名選手兩君

世界的新記錄

大失望

포항의대동단

흥치敎徒

延安에偽造紙幣

銀行뒤에棄兒

錦山饑饉音樂

六萬五千의 讀書子

질문으로終了

금천디방소식

협성校新校長

自稱商理社員

七名少年竊盜

市井雜事

饑饉義金

구제회에온바

집일로尹東秀

부모공경한다음

종명자

憲兵警察規程

廣告

가뎡부인 음력설을압헤두고

설보입감을불르는부인네들 설음두번쇠는조선인의가뎡 금년설보입감은엇더한가

▲양속 一尺一圓 / 一尺七十五錢(서양) / 同六十五錢 / 一尺四十五錢(일본) / 一尺四十錢 / 一尺三十五錢 / 一尺二十六錢 종로경성상회됴사

▲명주 철원(鐵原)一疋十五圓 / 희천(熙川)一疋十六圓 / 영변(寧邊)一疋十三圓 종로경성상회됴사

▲당긔감 당긔한감 一圓 / 同 一圓 종로경성상회됴사

가뎡에필요한 응급치료법 —별안간병이낫슬때— (一)

싸스중독되엿슬때

떡이목에걸엿슬때

空前의大繁昌 인천의화류계

…은오십오원이나 그러나 소위일류가생들은 매일십오시간 내지이십시간식이나 된다한즉 그네들의버리가 조흔것은 가히알겟스며의외에 화류계가 은성하엿슴도짐작할수잇는바 그런번창설이래이러한 성적은 처음본다더라(인천)

安邊에乞人燒死

화로불을쪼이다가 옷에불이당기여서

함남안변군문산면신청리(安邊郡文山面新淸里)에서는 지난팔일 오후아홉시경에 걸인(乞人)한명이 무참히불에타서죽엇는데 원인을들으면 그날아츰에 밥을어더가지고 권긔를방아ㅅ간에가서불을노코쪼이다가 졸던간불이옷에부트매 급한김에 개천으로달려가다가 필경맹렬한불긔운에 중로에 쓸어져그와가티죽엇는데 성명도 미상하며 나희는 오십사오세가량이나되엇다더라(안변)

六十歲老人이 억울히부상치사

자뎐차와충돌되야

원산수뎡(元山壽町)일뎡목금택철차랑(金澤鐵次郞)이란일본사람의집에 고용으로잇는 진권섭(秦鉉燮)(六○)은지난구일오전열시경에자전차를타고본뎡(本町)사뎡목을지나다가 륙십세가량되는 로인과 충돌되야중상을시켯는데 피해자는 곳시내재동병원(齋藤病院)으로 입원을 식여응급치료를하엿스나마츰내동일 오후두시경에 무참히 사망하얏는바 가해자는 과실상해치사죄로목하원산경찰서에인치취됴중이라더라(원산)

仁川雄辯大會

장소는내리례배당

인배회(仁培會)주최로오는십칠일에 인천웅변대회(仁川雄辯大會)를연다함은 이미보도하엿거니와 그장소는 내리 례배당(內里禮拜堂)으로 결뎡 되엿고 연사에게대한 시간은 매락십오분쯤되겟다는데 방금각단데 대표연사들은 맹렬한연습을 하는중이라하니당일의장관일것을미리알겟더라(인천)

固城에時局强盜

부녀를위협 금품을강탈도주

경남고성군하일면수양리(慶南固城郡下一面垂楊里)변원식(卞元湜)의집에 지난팔일오후십일시경에 주인변씨는 일본에가고부녀만잇는틈을타서강도두명이각기손에단도를들고들어와서시국을표방하면서녀자두명을결박하야노코현금이십여원과물품이십여원어치를 빼아서가지고 어대로종적을 감추엇 다는데이급보를들은 고성경찰서에서는 극비밀리에활동중이라더라(고성)

仁川鐵工組合創立

계급전선에전위가되자

긔보한인천철공조합(仁川鐵工組合)창립총회는십일일밤여섯시부터인천로맹(仁川勞盟)회관에서 열리엇는데 발긔인측의한사람인긔인창(奇仁昌)씨가 개회사를한후 림시의장을 선거하니인천로맹위원장 박창한(朴昌漢)씨가당선되야 회무를진행할새 취지설명 경과보고선언강령제뎡규측은리사회에위임한후 리사선거를마치고래빈측으로경성북풍회(北風會)대표신철(辛鐵)씨로부터북풍회와경성청년회(京城靑年會)의축문과 동금축사가잇슨후조선로농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대표서정희(徐廷禧)씨로부터의미깁흔축사로서 무사히총회를 마치엇는데 동조합의 선언강령과 당일당선된리사는아래와갓다

선언

一、우리는 우리계급단결(階級團結)로써 대중본위(大衆本位)의신사회를 건설하는전위대가되자

二、우리는우리계급의생활을근본으로개선(改善)하야상호부조(相互扶助)의원측(原則)을실현(實現)하자

강령

一、우리인천철공동무는상호부조의원측아래서계급적단결을위하야인천철공조합을조직함

二、우리는계급전선에서우리계급의해방(解放)을긔(期)함

리사

權順和 金鵬燮 李漢龍 盧有萬 奇仁昌 宋壽安 宋七星 梁錫福 張鳳述 金德集 韓泰山 姜起馨 韓溪瑞(인천)

關東靑年大會 準備委員會

제반사무를분담하야 착착진행에노력한다

관동청년대회 발긔인회를 지난오일에 고성군간성면 수청청년회(泣城靑年會)관에서개최하엿다함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선뎡된준비위원들은 그날 저녁에 데일회 준비위원회를열고 다음과가튼결의를하엿다더라(고성)

◇事務分擔

庶務部 朴炳曾 成演鍊 金
宣傳部 伊 崔鍾鳴 韓明 崔
高集 沈相俊 李宣淵 李
東森 魚宗汚 金春培 李
學洙 宋寅鎬 成明權

◇宣傳隊組織

一隊 崔鍾鳴 韓明
襄陽 江陵 三陟 蔚珍
二隊 金炳喜 成演鍊
麟蹄 楊口 華川 春川
洪川 橫城 原州 寧越
平昌 旌善
三隊 崔禹集 朴炳曾
高城 通川 淮陽 金化
平康 鐵原 伊川

◇出版日 二月부터

一、準備委員會 泣城靑年會에 두기로

一、主催文明草 庶務部에一任

一、豫算案作成

一、大會場所로定한神溪寺交涉委員 朴炳曾 成演鍊 韓明

兩氏滿期出獄

전남(全南)광주(光州)석곡면(石谷面)소작인회(小作人會)소작쟁의사건으로광주형무소(光州刑務所)에서복역하던 간부김덕의(金德義)강순좌(姜舜佐)량씨는 지난십일오전열시에만긔출옥하엿다더라(광주)

急死한十六歲少婦

타살인가자살인가 의심스런그의죽엄

인천부신화수리(仁川府新花水里)일백십일번디 조직헌(趙稷憲)씨의맛딸 유순(柔順)(一六)은지난음력 삼월하순경에 부천군령흥면자월리(富川郡靈興面紫月里)강표선(姜表先)(三一)에게로시집을갓는데 원악 면영관계로민적에도 올리지못하고 잇든바요사이에 이르러 풍문에의하면권긔 유순이는 벌서수십일전에죽엇다함으로 하도 이상이생각하고곳그친부가그곳에가랴하엿스나자월리(紫月里)로말하면섬길(島道)이라아직가지못하고 잇든중 지난십일일에 권긔강표선의 형되는자가 마츰인천에온 것을알고전후사실을 무른즉 그자는 어름어름하고 잘대답도못하며시테는 민적관계로 투장해바렷다는말까지 함으로 그친부되는조직헌씨는 그딸이 혹학대에못익여자살을하엿나또는 타살인가 하야의심스러운점이만음으로곳인천서에사실진상조사원을데출하엿다더라(인천)

學生의非行

일반의비난공격

함흥군운뎐면한모(咸興郡雲田面韓某)(二四)는방금 동군농업학교에 재학중인데 작년십이월이십구일 자긔의집하인리룡구(李龍九)의처를간통하다가 동일오후칠시경에 그의남편에게 발각되야 문데중이라는데 학생의몸

通帳을僞造하야 郵便局을속히라다가

사실이발각되야삼명데포

평북녕변군소림면상추동(平北寧邊郡少林面上秋洞)리경립(李敬立)(三二)리용운(李用韻)(一八)등 삼명은 정학련(鄭學天)과 공모하고 작년 팔월이십구일에 박천군북면삼안동(博川郡北面三安洞)서병태(徐炳泰)라는명의로박천우편소에돈삼십전을저금하고 동구월 이십구일에또십칠전을 저금한후 우편소장의인장과일부인을 위조하야동십일월이일에 칠백칠십원과동십일월에 칠백이십사원을제손으로통장에긔입하야가지고소장의인장과일짜인을찍은후에동십이월이십오일에는우편소에가서일천륙백십원의불려(拂戾)청구를하다가 사실이발각되야삼명이모다박천경찰서에데포되야취됴를밧는중이더니 일전에 검사국으로압송하얏다더라(박천)

少婦의自殺屍

원인은됴사하는중

지난구일에 부산부수정동(釜山府水晶洞)압바다에 젊은부인의시테가 떠다니는것을 털도공부가보고 즉시부산수상경찰서(水上警察署)에 신고한바 동경찰서에서는 공의를다리고 현장에출장하야 검시한후 그의남편되는리화수(李化守)에게로인도하엿는데자살로판명되야그원인을방금됴사중이라더라(부산)

釜山電車事故

지난구일아츰열시경에부산진(釜山鎭)에서 남행하는던차 뎨오호가부산역전황정 려관(荒井旅館)압흘지날째에부산영주동(釜山瀛州洞)이십삼번디 사는 리백술(李白述)(三○)은 차륜(車輪)을지고던차궤도를건너가다가 던차와충돌되야 혼도되엿는데 부산경찰서에서는 즉시 현장에출장하야 병원에입원치료한바생명에는관계가 업다하며 머리꿀이상하얏다는데운전수 김흥준(金興俊)(二三)은 경찰서에서 취됴중이라더라(부산)

覆面强盜

공주에서데포

지난사일상오한시경에공주군우성면 도천리(公州郡牛城面道川里)정성옥(鄭成玉)의집에 얼굴을 가린강도한명이 한자가량의식칼을가지고 드러와서 주인을위협하야 나무관돈 륙원을강탈도주하엿는데 이소문을 드른그곳주재소와 공주 경찰서에서는 경관이 현장에출장하야 범인을수색한결과 동면상서리 남재순(上西里南在順)(二四)을데포하야심문한결과 사실을 자백하얏슴으로 공주경찰서로 압송하얏다더라(공주)

酒席에서毆打하야 동료를죽인자

범인은엄중취됴중

평남대동군 대동강면률리(大同郡大同江面栗里)석탄광부홍세원(洪世元)(二八)은 지난이일오전한시경에동리음식뎜김성택(金聖澤)의집에서가터석탄일하는김뎡호(金貞鎬)로더부러술을먹고 술이취한후에 서로말다툼을시작하야홍세원은김뎡호의가슴을발길로차서중상케하야그로말미암아 지난팔일에 드듸어사망케하엿슴으로 평양 경찰서에서는 가해자홍세원을 데포하야목하엄중취됴중이라더라(평양)

그짓强盜頻頻

평양시내에또한명

평양하수구리 한길손(平壤下水口里韓吉孫)(三二)은 지난구일오전열시에 부내서문통 우편소에서 위데삼십륙원이십전을 차저가지고도라가든중로에엇던자세명이 달려드러 돈을강탈하고개천에밀어너허서머리까지째여젓다고 평양경찰서에 보고하엿스나 동서에서는그의말에 수상한덤이만하이즈음에흔이생기는거짓강도의 의심이잇슴으로 도로혀 그자를엄중히취됴한즉 과연 그자는 그날자긔의 주인량종섭(梁宗燮)의브탁을바다위데돈을차저가지고 도라가든길에 욕심이나서 돈을 버선목안에 감추고 거짓신고를 한것이라 더라(평양)

童話 임금님의서ㅅ딸 (三)

사람의눈을 피하여서 엇던산골속으로 숨어드러간후 임금님막내따님은 산골속에 당도하야엉엉울고 잇는데 하늘에서떠러젓는지 쌍에서소사낫는지 녀신(女神)하나가와서작고 아가씨를위로하며서테는아가씨를꼭껴안고 『친부에게 쫏겨낫스면 내가 아쉬운대로 어머니가되여 그대를 돌보아주마』 하고바위 미테잇는 적은집으로 인도하고 『이후로삼년이 지나면꼭호운이올터이니결단코한탄할것은업소 그때까지는 나와함께삽시다』하고 이것저것을 아가씨의일을보살펴주며 그럭저럭 온삼년이 지낫습니다

임금님과 녀왕과는 이따님이찻고십흔마음에 세계의쇠테서 끗까지려행을하엿스나 일향 알수가업고 온삼년을 나그네속에서세월을보냇는데 마침 그삼년이되든날 우연히이따님이 숨어잇는산길에건처잇섯습니다

산이험한데따라말굽도서지못하게되엿슴으로두분은이째까지도모지걸어보지못한험난한길을한거름한거름 더듬어 괴로운숨을헐떡헐떡하면서 산등성이를올라섯습니다 그리는동안에 해가저서 사면은캄캄하게되고 인제는 더거를수도업게되엿슴으로 바위미테거러안저 일심정긔를드려하나님께도와줍시사하고 긔도를올리엇습니다 그효험이 잇섯든지 얼마안되여 저편에서 동구런다님(月)이하늘에떠올라서 사면을비취녓가 두사람은깃부게 또용긔를내이어 산등어리를 올라가기시작하엿습니다

얼마안되여 뒤에서사람의소래가낫습니다두분은 놀라서 뒤를도라보니 머리에서 발꿈치까지짐승의 가죽을 쓰고눈만야광주(夜光珠)가티 빗내고 잇는사람이 컴벅컴벅거르며 와서 『왼일로여기다니시는 어른이신듯한데 대단히 비통하신 모양이신듯하십니다 어대까지 가실곳이업스시면 대단히 협착하고 고루추한 집이나마 저의집에서 하로밤 쉬어가시지요…』하는것은 녀자의목소래 이엇습니다

멍텅구리 련애생활 (34)

늙은아버지(4)

(一) 신문에난단말만 신통하야

그래 정말 너얼이 조선일보에 시재가 되단 말이냐

되고말고요 날마다 그림으로그려서 아지

(二) 조선일보를 보다가

여긔 조선일보가 잇스니 보십시오

이리 주게

(三) 죽은마누라 생각이나서

어이고 그림도 신통하다 너와 꼭 갓고나

(四) 늙은멍텅구리의 눈물이뚝뚝

어이구어이구 너의어머니가 살아서이것을 보앗드면얼마나 조와하얏겟니

으흐 어이구 설어

奇人奇緣 (76)

金浪雲 譯 盧心汕 畫

六六、대 달

돈논으로가라함에웬일인지자긔가업는 동안에 뎡희가떡져저하리라하는 생각이 굿세게이러낫다. 자긔가업는동안이래야 겨우저녁때까지 이엇다 이전에취직하고 잇슬때에비하면 아모것도아니나 무슨까닭인지 그러한념려가 생겻다 뎡희도또한마음이 그러하엿든지

『얼른오세요 어머니도안게시고한데』하고말하엿다 모친은깃분것을 이야기하기위하야 박사의집으로가서 아즉 돌아오지아니하엿다 경호는

『무얼 저녁먹기전에올걸』하고나왓다 그러나그의 마음은까닭업시 무거웟다 사람이무슨재난을 당하든지 무슨변을당하

라면 자연히 마음부터경기는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재난이생기고괴변이 이러날리가 잇슬가무슨불미한일을 당할때에는 자연히신경이과민하여저서무엇을보든지가슴이두근거리고걱정이되고하는것이지마는이제그들은엇재서그럴가 아닌게아니라 그들이당한 모든일은 그들의신경을가만히둘수도 업섯다 만일괴질이약한사람가트면 너무나 즐거움에 발광도하고 긔절도할지몰을것이엇다

엇잿던 경호는이상한 긔분으로집을나섯다 그만둘가 하고도생각하엿스나 아모것도 그만두어야할 리유도업슴으로 그대로떠낫다 문밧게나서서 사방을둘러봄에 깃봄이또다시 가득하여첫다 그가밟는땅은그의것이엇다 데데로불리어오든그의것이엇다 공긔도 그의것이오 푸른하늘도 그의것이엇다 다른사람으로하야금 그땅우에 서지도못하게하고 그공긔를마시지도못하게하고 그의 머리우에잇는 그푸른하늘을 미헤 서지도못하게할수도 잇섯다 누가그의그러한권리를쌔앗을수잇슬가 하면범을이못하게한다 법률까지도 그의물건이엇다 진실로유쾌하엿다 진실로 자미스러운세상이엇다 또한앞흐로계속하야오는그의장래는즐거운일뿐이엇다 모자가 그것을 차져내겟다고 주야로애쓰든 째와 얼마나딴판인가그의부부가밤낫 으로절약절약하든째와얼마나딴 판인가아모리쓸지라도줄어들리 가업는것이엇다쓰지아니하면도로혀너무불어서걱정일것이엇다 이러한행복으로서세상에큰은인노릇을못할리도업섯다분발심한가지로자긔의이름이멧천만년까지드날릴것이다 모든것을 다말하면안해의덕 아! 뎡희만치고마운사람은 업섯다 그는차를탄후에도 이러한생각이 작구계속하엿다

얼마후에 긔차는 밧구어타는 정거장에 도착하엿다 경호는나려서 다음차를 기다리게되엿다 기다리는 시간이 한삼십분되엇섯다 그러는 동안에 론논에서오는긔차가 왓다 이차에서도밧구어탈사람과 여러사람들이 만히나리엇다 경호는 무심코그사람들의 얼골을 바라보고잇섯다

경호가 탈차는 그다음차이엇다 바라보고잇슬때에 경호의눈을 씻어지게한얼골이 하나잇섯다 경호는다만『엇?』하고 속으로부르지젓다 그러고 다시살펴보앗다 처음에는무심코 보든것을 이번에는뚜려저라하고 보앗다 더할대할! 그것은경호의목숨을쌔앗는 얼골이엇다 경호는단박에 얼골빗이달라젓다 그는마치땅우에 못박힌것가탓다 경호를이토록 놀라게한것은 대관절 누구의얼골일가 다른사람이아니라 그것은 김창배의얼골이엇다

내가잘못보지아니하엿나하고경호는생각하엿스나 잘못본 것이아니엇다 이상하게남을 우롱하는듯한그눈이며 의리와 인정을우습게하는듯한 보기실흔 우숨이나오는 그입이며 조곰도틀림이업섯다 그것을 경호는예전부터실혀하엿다 그러케 실혀하는얼골이 창배외에 또잇슬리도업스며 경호가또 잘못볼리도업섯다 창배는먼데로 방랑하다가도라오는모양이엇다 몹시 곤경에싸졋던모양이 일일히 들어나잇섯다 그의입은의복은 더러웟다 그가들고잇는가방은 가죽이발기발기 피어젓다 말을하자면거지나 다름이업섯다 아마중도에서 비렁질도하엿슬듯 하엿다

그러나 그러한것은 아모상관도 업는일이엇다 창배가거지가되엇거니 그것이경호에게 무슨상관이잇슬가